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변인 연구*

전 병 호**

Affecting factors of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Jun Byoung-ho

〈Abstract〉

SNS has been emerging as an educational tool, because of its features such as discussion on course topics, feedback from peers and group collab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ffecting factors of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Based on prior studies self-efficacy,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identified as affecting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l factors(self-efficacy,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Result shows that educational expectancy and enjoyment are much mo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It can provide a guideline of effective strategy for SNS uti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Key Words : Social Network Service(SNS), College Education, Learner's Attitude, Intention to Use

I. 서론

1)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소통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공유하며,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인맥을 확장하여 새로운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1]. 한편 기술이 학생들의 소통과 학습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대학에서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

적이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주목받던 소셜 미디어가 교육 목적을 위한 효과적 톨로써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2]. 즉 다양한 SNS 활용의 보편화로 인해 교수-학습활동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3], 실제로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간의 관계 형성, 정보공유, 협업, 피드백 등을 위한 도구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4].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 교육 분야에서 소셜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과 기능이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2, 5], 소셜 미디어는 공공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 2015년 디지털산업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보완 및 추가하였음.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셜 미디어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학습 만족도를 높여 준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임병노 외(2007)의 연구에서는 SNS는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간관계,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사고활동 촉진의 장 역할을 하여 교육적으로도 활용가치가 크다고 강조하였으며[7], Stacey(2002)의 연구에서는 SNS가 학습자들에게 학업성취도와 학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며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의 수용 및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SNS 활용을 위한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간 협업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칭하고 있다[2].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문맥적 의미의 휴먼 네트워크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4]. 우리에게 알려진 주요 소셜 미디어로는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 유튜브 (YouTube), 밴드, 카카오톡 등이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주요 기능은 그 유형과 관계없이 공유, 참여, 협력, 쌍방향 소통 등과 같은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64.9%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90.1%는 주 1회 이상(하루에 1회 이상 51.8%, 일주일에 1회 이상 38.3%) 개인적인 용도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용 목적에 있어서도 친교 및 교제(77.2%) 뿐 아니라 지식 및 정보 공유(36.6%)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대표적인 페이스북의 경우 2015년 1분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억 5천만을 넘어섰고, 국내의 경우도 월간 이용자 수가 1천 6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10].

2.2 소셜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과 SNS 발달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람간의 새로운 소통방식의 변화가 있다. 대학 교육도 변하고 있는 소통 방식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의 소통방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모하기 위한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11].

사회 구성주의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학습은 그 특성상 대화적(conversational)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SNS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참여적 사회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상황 학습 이론 역시 SNS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해 준다. 수업에 SNS를 활용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가치 기대감,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의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TAM이다. TAM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12].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쉽게 적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활용 효능감과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13].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을 컴퓨터와 같은 매체에 적용한 개념이 매체활용 효능감이다[14]. 컴퓨터 관련 교육에서도 이러한 매체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자신감을 높여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로 이어진다고 나타나고 있다[15].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매체활용 효능감은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적 가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16]. 정보기술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성과에 대한 기대 가치는 사용자 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학습에 유용하고 학습 성과를 신장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

들의 관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일종의 사회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18]. 즉 자신이 준거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 특정 매체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구조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19].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는 수용 초기에는 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은 증가하지만 성찰적인 인지과정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20]. 즉, 사용자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나 학습으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인 습관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이용에서의 습관은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21],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습관과 태도간에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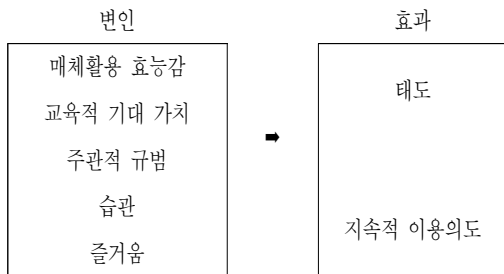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용자들보다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22]. 소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내적인 즐거움과 흥미는 사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과 같이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이용의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TAM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의 유용성과 용이성 요인에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인 습관과 즐거움, 그리고 주관적 규범을 추가하였다. 테크놀로지는 수용 초기에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 이용된다[20]. 그리고 SNS는 특정 목적 이외에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22],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18].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가설

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SNS에 대한 매체활용 효능감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SNS에 대한 교육적 가치 기대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SNS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SNS에 대한 습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SNS에 대한 즐거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척도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은 내용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당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항목들로부터 선택하여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 척도는 <표 1>과 같다. 각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값의 범위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표 1> 측정 척도

요인	문항수 및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매체활용 효능감	SNS 활용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3)	[10][11]
교육적 가치 기대	SNS 활용이 학습 수행이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정도(3)	[10]
주관적 규범	SNS의 활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거나 지각하는 정도(4)	[12][13]
습관	SNS 활용에의 습관 정도(4)	[3][14]
즐거움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정도(3)	[15]
태도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긍정적 신념(3)	[23][24]
지속적 이용의도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지속적 사용 여부 및 추천(4)	

IV. 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SNS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면접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11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10명중 남자 21명, 여자 89명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다소 많으며, 1학년 10명, 2학년 47명, 3학년 17명, 4학년 36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4.2 자료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의 특성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이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 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25].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으로 측정도구에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요인 분석 결과(독립 변수)

	습관	즐거움	교육적 기대가치	매체활용 효능감	주관적 규범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918				
SNS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편이다	.886				
SNS를 별 다른 생각 없이 사용하는 편이다	.880				
SNS를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760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재미를 느낀다		.896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		.867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즐거움을 느낀다		.813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면 학습 성과가 좋을 것이다			.822		
SNS를 활용하는 수업은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이다			.811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794		
수업에서 활용하는 SNS에서 수업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은 쉽다				.815	
수업에서 활용하는 SNS에서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쉽다				.811	
SNS를 활용하는 것은 쉽다				.750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45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수업에 있어서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60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수업에서 SNS 활용이 (조별 과제 등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700
고유치	6.829	2.496	1.309	1.196	1.025
분산율(%)	42.7	15.6	8.2	7.5	6.5
Cronbach' α	0.908	0.948	0.881	0.819	0.779

<표 3> 요인 분석 결과(중속 변수)

	지속적 이용 의도	태도
다음 학기에도 SNS를 통해 교수님과 소통하는 강의를 수강할 것이다	.882	
다음 학기에도 수업에서 SNS를 활용할 것이다	.860	
다음 학기에도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수강할 것이다	.802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주변 친구나 선배에게 추천을 할 것이다	.779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856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830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60
고유치	5.112	.734
분산율(%)	73.030	10.487
Cronbach' a	0.931	0.881

<표 4> 회귀 분석 결과(태도)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3.452	.049		70.923	.000*	1.000	1.000
습관	.115	.049	.150	2.348	.021**	1.000	1.000
즐거움	.364	.049	.477	7.440	.000*	1.000	1.000
교육적 기대가치	.259	.049	.339	5.293	.000*	1.000	1.000
매체활용 효능감	.253	.049	.332	5.180	.000*	1.000	1.000
주관적 규범	.239	.049	.313	4.888	.000*	1.000	1.000
R2 = .573, F = 27.921, P = .000							

* P<0.01, ** P, 0.05

<표 5> 회귀 분석 결과(지속적 이용의도)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3.339	.052		63.775	.000*	1.000	1.000
습관	.101	.053	.123	1.915	.058**	1.000	1.000
즐거움	.437	.053	.535	8.303	.000*	1.000	1.000
교육적 기대가치	.267	.053	.328	5.082	.000*	1.000	1.000
매체활용 효능감	.222	.053	.272	4.219	.000*	1.000	1.000
주관적 규범	.238	.053	.292	4.528	.000*	1.000	1.000
R2 = .568, F = 27.348, P = .000							

* P<0.01, ** P, 0.05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구해

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분석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다. 요인 적재값은 모

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들이 구성하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주관적 규범 4 제거, [26]).

4.3 가설검증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 습관의 요인이 이용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의 모형은 F값이 27.921(P=.000), 27.348(P=.000)으로 모두 의미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 <표 5>와 같은데, 5개의 모든 요인이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 요인만 유의 수준 5%(태도), 10%(지속적 이용의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분석 결과를 수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나머지 요인은 모두 유의 수준 1%에서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5개 요인 중 즐거움이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적 기대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맺음말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그리고 과다 사용 등 소셜 미디어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제시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를 증대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지배적이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체활용 효능

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5개의 모든 요인이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하게 SNS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동료들 관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클수록, 그리고 습관적일수록 사용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활용하기 쉬우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즐거움과 교육적 기대가치가 다른 요인들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SNS를 학습에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업을 위해 LMS를 제공하고 있으며, SNS는 필요에 따라 보조적 차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알림 설정을 통해 SNS는 LMS에 비해 다소 신속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덜 구조화된 비공식적 채널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생들이 큰 거부감 없이 편하게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쉽게 활용하고 있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즐거움이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미현 외(2014)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SNS는 수업 외 시간에 면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8]. 따라서 SNS가 공지 사항 및 자료 제공 등의 수업 공식적인 것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SNS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NS 활

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학습자들을 포함하여 수업 유형과 학습자의 개인 특성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SNS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전략적 지침 제공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입장 뿐 아니라 SNS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자 결정을 하는 교수자의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조진숙·김미량, “소셜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사의 태도와 관련 요인간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0권, 제2호, 2014, pp. 303-325.
- [2] Paul A. Tess, “The role of social media in higher education classes (real and virtual) –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9, 2013, pp. 60-68.
- [3] 정한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한 대학생의 사용의도 탐색 연구: 대학 강의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31권, 제1호, 2015, pp. 39-72.
- [4] 이시화, “SNS를 활용한 대학 수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Edmodo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5호, 2013, pp. 153-169.
- [5] Peppler, K., & Solomou, M., “Building creativity: Collaborative learning and creativity in social media environments,” *On the Horizon*, vol. 19, no. 1, 2011, pp. 13-23.
- [6] Friesen, N., & Lowe, S., “The questionable promise of social media for education: Connective learning and the commercial imperativ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vol. 28, no. 3, 2011, pp. 183-194.
- [7] 임병노·이준, “고등교육에서의 e-러닝 콘텐츠 실태와 시사점,”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2호, 2007, pp. 277-307.
- [8] Stacey, Quality online participation: establishing social presence, In T. Evans(Ed.), *Research in Distance Education*, Deakin University, Geelong, 2002, pp. 138-152.
- [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 [1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11] 임걸, “소셜미디어콘텐츠분석에따른참여유형및 학습촉진방안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1, no. 6, 2011, pp. 495-509.
- [12] Davis, 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1989, pp. 319-340.
- [13] 전병호, “대학교의 정보교육 만족과 성과의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14권, 제4호, 2010, pp. 477-489.
- [14]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 [15] Santhanam, R., Sasidharan, S., & Webster, J., “Using self-regulatory learning to enhance e-learning-based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9, 2008, pp. 26-47.
- [16] Wu, J. H, Tennyson, and Hisa, “A study of student satisfaction in a blended e-learning system environment,” *Computers & Education*,

- vol. 55, 2010, pp. 155-164.
- [17] Shih, H. P., "Assessi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ompetence on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computer use: An IT student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2, 2006, pp. 1012-1026.
- [18] Kwon, O., & Wen, Y.,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6, no. 2, 2010, pp. 254-263.
- [19] Venkatesh, Viswanath and Fred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2, 2000, pp. 186-204.
- [20] Limayem, M., Hirt, S. G., & Cheung, C. M. K., "How habit limits the predictive power of intention: The case of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MIS Quarterly*, vol. 31, no. 4, 2007. pp. 705-737.
- [21] Limayem, M., & Hirt, S. G., "Force of habit and information systems usage: theory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2003, pp. 65-97.
- [22] Chen, Y. F., "See you on facebook: Exploring influences on facebook continuous usage,"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vol. 33, no. 11, 2014, pp. 1208-1218.
- [23] 전병호, "SNS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의 비교,"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1권, 제2호, 2015, pp. 181-192.
- [24] 전병호 · 강병구, "SNS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2014, pp. 169-179.
- [25] Hair, J. T., R. E. Anderson and R. L. Tatham and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Fif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26]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94.
- [27] 전은화, "SNS를 활용한 협력 학습에서 학습자 특성이 협력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16. pp. 571-596.
- [28] 정미현 · 김영록 · 김재현, "SNS의 교육적 활용 방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2014, pp. 33-41.

■ 저자소개 ■



전 병 호
Jun Byoung-ho

2008년 9월~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2008년 2월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전략, 중소기업
정보화,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표준경영
E-mail : bojun00@swu.ac.kr

논문접수일: 2016년 5월 27일
수 정 일: 2016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